善悪との実体を把握して除去する聖書の主人公

선악과의 실체를 파악하고 제거하는 성경의 주인공

聖書には「善悪科を食べることで善悪を知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言葉が記録されています。善悪の果実を食べる前にアダムとハワは神様の姿であり、神様の神様で充満しました。

神様の神は善良な神なので、善良なことを知らなかったはずがありません。また聖書は「神様が6日間この世の万物を作ったが、作ったところすべての万物が見るに善かった」と話しています。善悪の果物を食べる前は善いものばかり見ていたので、善いものは知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善悪を食べることによって善と悪を同時に知るようになったのではなく、悪をさらに知るようになったのだ。だから善悪とは「善の上に悪を追加的に知った心」なのです。ところが、悪を知る心は悪の心、悪の心は悪魔の霊です。

したがって、善悪とは悪魔なのです。悪魔の善悪科がその時から人類を支配する主體靈になったのです。したがって、善悪科はすなわち現在の人間各自の中にある「私」という主体意識なのです。

성경에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며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었다.

하나님의 신은 선한 신이므로 선한 것을 모를 리 없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만물을 지었는데 지은 바 모든 만물이 보기에 선했더라'고 말씀하고 있다.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는 선한 것만 보았으니 선한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동시에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악을 더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란 '선 위에 악을 더 알게 하는 마음'인 것이다. 그런데 악을 아는 마음은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은 마귀의 영이다.

따라서 선악과는 마귀인 것이다. 마귀인 선악과가 그때부터 인류를 지배하는 주체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선악과란 곧 현재 인간 각자 속에 있는 '나라는 주체의식'인 것이다.

蛇がイブを誘惑してそのような悲劇が生じたとしたら, その蛇は果たして誰が造ったのであろうが 뱀이 해와를 유혹해서 그러한 비극이 생긴다면, 그 뱀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創世記にはアダムとイブガ神様の呪いを受けてエデンの園から追い出され, 永代に渉る苦痛と死を味わうようになったと云う言葉が記錄されているが, 神ご自身が直接土をこねて造られたはずの彼らがどうして神の命令に背く事が出來たであろうか. 蛇がイブを誘惑してそのような悲劇が生じたとしたら, その蛇は果たして誰が造ったのであろうが. 蛇を造った者にこそ原初的な責任があるのではないか. そしてまた, あくまでも善であられる神が, 唯一度のしくじりもゆるさずに酷い罰を下されたのであろうか. 更に未來を見通す事の出來る全知全能の神であられるならば, アダムとイブが遠からずして「善惡知る木の實」を取って食べる事も豫知出來たはずであったのだから, それならば, その前にその木を切ってしまうことが出來なかったのだろうか. 神は, ご自身の子供達を罪に落とし入れるように誘惑した蛇を, その事が起る以前に殺してしまう事が出來なかったのであろうか. また「善惡知る木の實」のなる木を最初から造られ無かったならばこのような事は起ることも無かったであろう. 창세기에는 아담과 해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에덴동산에서 내쫓기고 세세토록 고통과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이 직접 빚어 만드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는가? 뱀이 해와를 유혹하여 그런 비극이 생겼다면 그 뱀은 누가 만들었는가? 뱀을 만든 자에게 원초적인 책임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선하디 선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세세토록 그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는가? 또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전지(全知, Omniscient)의 하나님이라면 아담과 해와가 얼마 안있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내다보셨을 텐데, 그러면 그전에 그 나무를 베어버릴 수는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들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했던 뱀을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죽여버릴 수는 없었는가? 그리고 처음부터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지 않았는가?

このように, あれこれと私達は人類に悲劇を孕ませたこの事柄に對して , 神にその責任を負わせざるを得ないのである. だがこのような推定は, 神が全知全能であられたと云う仮定の下で出てくる結論である. 若し神が, 全知全能であられなかったとしたら, 言い換えるならば, 惡の根源である惡魔に勝つことが出來なかったと考えるとき, この全ての疑問はおのずと解けてくるのである. 이래저래 우리는 인류의 비극을 잉태시킨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추정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말해 악의 근원인 마귀를 이기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의문이 저절로 풀리게 된다.

「善惡知る木の實」事件以後, 聖書の數箇所で神はご自分の不俱戴天の敵である惡魔を根こそぎ滅ぼしてご自身の國を再び立てられるご計画を明かしておられる. そして, 惡魔を殺す事の出來る勝利者が出て來るのを待ち焦がれて居られる姿が默示錄に7度に宣り, 反復され强調されているのである. 선악과 사건 이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철천지 원수마귀를 발등상시키고 당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계획을 밝히고 있다. 마귀를 죽일 수 있는 이긴자가 나오기를 묵시록에는 하나님께서 고대하는 모습이 일곱 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다.

これは神が惡魔に勝てなかったと云う, 惡魔に敗けてしまったと云う推定をせざるを得ないのである. そして神が惡魔に敗けて以來, 六千年という年月が流れるまで, 惡魔に勝つ能力を持つ勝利者を育て上げられたとしたら, その勝利者がこの世の中を再惡魔から取りもとし, もとの世界に回復するまではこの世は惡魔の支配下にあったという考えを可能にすることが出來る.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지 못하였다는, 더 나아가서 마귀에게 패배하였다는 추정을 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배한 이후 육천 년이 흐르도록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이긴자를 키워왔다면 그 이긴자가 이 세상을 다시 마귀로부터 회복하기까지는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어 왔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事實がそうであるのなら, ご自身の子供である人類を救援されるというその豫言の言葉を, 惡魔によってその戰略も戰術をもかぎつけられないように聖書の中に隱して記して置く以外に方法が無かったであろう. 聖書の創世記をそのような角度から詳細に考える時, 我われは今まで知ることの出來なかった新しい事實を悟るようになる. 言い換えれば, 神は宇宙の再創造と人類の誕生と悲劇, そして救援と永生に關する重大な問題等に對して惡魔が解らないよう隱密に裏に聖書に書いて置かれたのである. 사실이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식격이 되는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마귀가 그 전략과 전술을 눈치채지 못하게 가려서 성경에 적어놓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성경 창세기서를 이런 각도에서 자세히 상고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재창조와 인류의 탄생과 비극,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마귀가 알지 못하게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성경에 적어놓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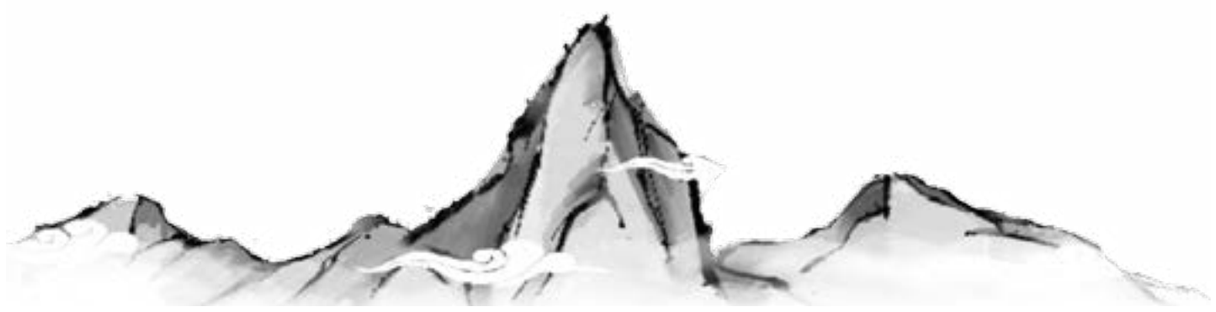
人間の主體意識を支配している靈が惡魔の靈である 인간의 주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마귀의 영이다

惡魔が人間の心の中で主體意識として座を占めるならば, 神はその重大な秘密の言葉を惡魔の囚われ人となった人間達に容易く目立つようにはなさるまい. それは, 聖書の主人公であられる神ご自身が惡魔を殺すことの出來る能力を養われた後, 人類を救援なさる終りの時, 始めてご自分の口を以てそれを解き, 語ら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그리고 그 마귀가 인간의 마음 속에 주체의식으로서 자리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차대한 비밀의 말씀을 죄인인 인간들의 눈에 띄게 했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그것은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 당신이 마귀를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을 완성하신 후 마지막 구원의 때가 되어서야 당신의 입으로 풀어지고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さもない時, 聖書を解けばだちまち臆測とか學說だけがいり亂れるからである. 今日どれほど多く聖書解釋の誤りが生じて來たことであろうか. 今も多くのキリスト教内の教派は自分の教派の教理だけが神のみ旨にかなった正しい解釋であると主張し, 互いに反目し猪疑の眼をこらしている. では, 現狀は人間の主體意識を支配している靈が惡魔の靈であることを理解出來るようになると, むしろ當然の出來事と歸結していく. 그렇지 못할 때 성경을 해석하면 구구한 억측과 학설만 난무할 뿐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경해석의 오류가 있어 왔는가? 현재에도 많은 기독교내 교파들이 서로 자기네 교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주장하며 반목질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은 인간의 주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다.*

격암유록 新 해설
수정판 제 64회

하룻밤에 천척(千隻)의 배가 인부지간(仁富之間)에 정박(碇泊)하리라



海運開歌(해운개가)

漸近海運苦盡甘來(점근해운고진감래)
海洋豊富近來(해양풍부근래)로다
千里萬里遠邦船(천리만리원방선)이
夜泊千艘仁富來(야박천소인부래)라
靑白相隔狗蛇間(청백상격구사간)에
推度五六分明(추도오륙분명)하고
戊己蛇鼠其然(무기사서기연)하니
六大九月海運開(륙대구월해운개)를
世人不知三六運(세인불지삼륙운)을

고진감래(苦盡甘來) 고생 끝에 낙(樂=즐거움)이 온다고 바다의 운이 점차 가까이 옴에 따라 금은보화를 가득 실은 배가 바다를 건너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천리만리 떨어진 먼 나라에서 배가 들어오니 하룻밤에 천척(千隻)의 배가 인부지간(仁富之間)에 정박(碇泊)하리라. 헤아려 본즉 을사(乙巳=靑+蛇)년과 경술(庚戌=白+狗)년 사이의 5~6년 무자(戊+鼠=戊子)월과 기사(己蛇=己+巳)월 사이가 분명하고 생명수의 기운이 크게 내리는 9월(음력)에 바다의 운이 열리니 이는 금운으로 오신 정도령으로 인한 것임을 세인들은 모르리라.

白石歌(백석가)

鷄山白石黑石皓(계산백석흑석호)
何年何時鷄石皓(하년하시계석호)냐
黑石白(흑석백)을何時望(하시망)고
惑世誣民白石也(혹세무민백석야)니
白石(백석)은 老石也(노석야)요
老石匠人棄石隅石也(노석장인기석우석야)니

계룡산의 흰 돌은 검은 돌이 희어진 것이라 하는데 어느 해 어느 때에 계룡산의 돌이 희어지는가? 검은 돌이 희어진다는 뜻은 무슨 뜻이며 검은 돌이 희어지는 것을 언제까지 바랄 것인가? 검은 돌이 흰 돌이 된다는 것은 혹세무민하는 것이니 흰 돌은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노석(老石)이요 노석은 비록 장인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를 받치는 초석이니라.

格菴歌辭 격암가사

語話世上四覽 어화세상사람들아
生命預言 생명예언들어보소
世上萬事虛無中(세상만사허무중)의
깨달을일만엇서라
文章豪傑英雄之才(문장호걸영웅지재)
不遇歲月(불우세월)잠깰때요
入山訪道(입산방도) 저君子(군자)들
山門(산문)열일 何歲月(하세월)고
阿彌陀佛念佛僧道(아미타불염불승도)
避凶推吉下山時(피흉추길하산시)라
時物文理(시물문리)잘살펴서
生死(생사)보아 去來(거래)하소
疑心(의심)업는 快知事(쾌지사)를
四月天中(사월천중)일렀다네

어화 세상 사람들아 영원한 생명의 예언 말씀을 들어보소. 세상만사가 허무한 가운데서도 깨달을 일 많도다. 문장(文章) 호걸(豪傑) 영웅(英雄)같은 재주 있는 사람들이여! 이제 불우한 세월에서 잠 깰 때요. 산속에 들어가 도를 찾는 군자들이여 어느 세월에 산문(山門)을 열 것인가? 아미타불을 염불하며 불도를 닦는 스님네들, 흉한 일을 피하고 길한 일을 찾아 하산할 때로다. 시물문리(時物文理) 즉 때와 세상 물정과 글의 이치를 잘 살펴서 살길인지 죽을 길인지를 가려보아서 가든지 오든지 하소. 의심 없는 통쾌한 일을 진사성인(정도령)이 일렀다네. 사월천(四月天)은 궁궁의 하나님이며 춘말하초 사월천이므로 춘말(春末)은 진(辰)이요 하초(夏初)는 사(巳)이다. 곧 진사성인을 일컫는 말이니 정도령이 되는 것이다.

和氣(화기)들소
一聽一見生覺(일청일견생각)하소
庶濟蒼生十勝(서제창생십승)일세
忘置勿驚逗遛生覺(망치물경두류생각)
忽然靑天多雲事(홀연청천다운사라)

사람의 두겁을 벗고 하나님으로 변화하는 무궁한 조화를 보이니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는 때는 언제이며 다시 이 땅으로 하강하는 때는 어느 때인가? 천문(天門)과 지호(地戶)를 마음대로 들고 나는 무궁한 조화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리니 상천시(上天時)와 하강시(下降時)를 자세하게 알기 어려우리라. 천하일기로 재생신(再生身)하여 세상에 나오시니 일기(一氣) 즉 하나님의 생명 기운으로 천하만국을 하나 되게 도울 것이요. 곳곳마다 산수 정기가 새롭게 되니라. 그분은 천지 일월성신의 정(精)과 신(神)이 하나로 합쳐진 분이라. 정도령을 몰라서 갈까 올까 망설이면 무궁한 조화를 자세하게 보여주네. 의심하지 말고 화평한 마음으로 들어보소. 한 번 듣고 본 것을 깊이깊이 생각해 보소. 세상의 뭇 사람을 제도하고 구원하는 분이 십승(十勝) 정도령 일세.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놀라지나 마소. 잡념 망상의 생각에 머무는 것은 청천 하늘에 홀연히 많은 구름이 끼는 것과 같으니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5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